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장애음 오류 분석*

김 현**

1. 서 론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어 모어 화자가 보이는 오류들 중 장애음의 오류를 확인하고 원인을 고찰함에 있다. 제2언어 학습과 관련된 현상을 밝혀 온 두 가지의 큰 기제인 모어의 전이와 언어보편소가 각기 이들 오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70년대 중반까지 제2언어 음운부를 설명하던 주된 도구는 모어의 간섭 또는 전이(transfer)였다. Weinreich(1953)에서는 단위음 단계의 간섭을 소리의 대치(sound substitution), 구별의 불능(under differentiation), 지나친 구별(over differentiation), 대립 관계의 재해석(reinterpretation of distinction)으로 세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설명 방법은 Lado(1957)의 대조 분석 가설(Contrast Analysis Hypothesis)로 이어진다. 대조 분석 가설이란 요약컨대 제2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모어에 친숙한 부분은 쉽게 배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배우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현상의 설명에서 더 나아가 예측까지 하곤 하였다. 이후 대조 분석 가설은 설명은 하되 예측은 하지 않는 등 조금 유약해지기는 하였으나 70년대 중반에 이르도록 강력한 설명 기제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 본고는 제178회 朝鮮語研究會(일본, 2001. 7)에서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동발표한 것 중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회에 참여하여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 계이오대 강사

Eckman(1977)은 이러한 대조 분석 가설에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표성 차이 가설(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을 주창하였다.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다소 소략하다는 인상을 남기지만, 단순히 모어와 목표언어간의 대조에만 쏠려 있던 관심을 언어 보편적인 면으로 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유표성과 보편소의 관계에 근거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으며, Eckman(1991)에서는 모어와 목표언어간의 유표성 차이에만 근거하던 유표성 차이 가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언어 내에서의 유표성 관계에도 근거를 둔 중간언어 구조적 적합성 가설(Interlanguage Structural Conformity Hypothesis)를 주창하기에 이른다.¹⁾

제2언어의 음운부에 나타나는 특정 현상을 모어의 전이로 해석할 것인가 유표성 혹은 보편소의 문제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음절구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전이로의 해석과 언어보편소로의 해석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하게 드러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었다. 명확히 드러나는 한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는 포르투갈어 화자는 종성 뒤에 모음을 삽입하곤 하는데 피험자에 따라서 i를 삽입하기도 하고 θ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포르투갈어에 유입된 영어 외래어의 경우 i가 삽입된다는 것(예. hot dog > hoti dogi)으로 보아 전자는 모어의 전이로 해석될 만하지만 θ가 삽입되는 일은 없으므로 이는 종성 발음을 회피하고 CV구조를 좇는 언어 보편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반면 영어를 배우는 독어 화자가 어말 유성장애음을 무성음화시키는 것은 독어에 이미 그러한 형태음운론적 규칙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모어의 전이로 볼 수도 있으나, 영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Major 1987).

또한 일반적으로 CV구조를 선호한다는 보편성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

1) 70년대 초중반 이후 이른바 중간언어(interlanguage) 가설이 제기되면서 중간언어의 개념 및 독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모어의 전이와는 무관한 여러 과정 및 제약들에 관한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Tarone 1978 참조).

2) Carlisle(1994)에 종성의 발음 여부, 초성과 종성의 자음군의 발음, CV구조의 선호 등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소개되어 있다.

는 것도 아니다. Broselow(1983)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아라비아어(이라크 방언과 이집트 방언) 화자가 초성에 자음군이 있는 CCV에 대해 이집트 방언 화자는 자음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여 CV\$CV로 발음하는 한편 이라크 방언 화자는 자음군 앞에 모음을 삽입하여 VC\$CV로 음절구조를 단순화하고 있음을 예로 보이고 있다.³⁾

이렇듯 모어의 전이와 언어보편소라는 기제는 어느 한 쪽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 현상에 있어서도 때로는 두 가지의 해석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2언어의 독특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강력한 기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의 연구 대상에서도 역시 이 두 가지의 기제가 모두 확인될 것이다.

본고의 자료는 688개의 녹음된 한국어 단어를 두 명의 제보자에게 두 차례씩 들려주고 발음하게 한 것이다. 단어의 의미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녹음된 자료는 간략히 음성전사(broad phonetic transcription)하였다. 이러한 전사만으로도 목표어형과 오류어형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성분석기를 통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이 자연스러운 언어 상태를 대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단어항목을 통한 조사는 제2언어 연구의 초창기부터 줄곧 사용되어온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내재된 인위성 때문에 가급적 지양, 단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장의 수집 혹은 더 나아가 자연발화의 수집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되는 음 또는 음의 연쇄를 다양한 환경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 연구방법으로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집의 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차후 보다 자연적인 자료수집에 의한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보자는 현재 일본 慶應義塾大學 湘南藤澤캠퍼스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된 상태이다. 1999년 가을 학기와 2000년 봄학기, 가을학기 동안 1주일에 4일 100분씩의 수업을 받아 수업시간은 총 280시간에 이른다. 제보자A는 여학생, 제보자B는 남학생으

3) 영어를 배우는 스페인어 화자의 'sCV > es\$CV'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로서 두 학생 모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뛰어난 편이지만 제보자B의 발음은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조사 항목은 장애음을 가능한 한 모든 환경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즉 초성 그을 듣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성을 단모음에 한정하여 여러 가지로 대체해 가면서 항목을 선정하였다. 가급적 독립적인 명사나 부사로 하였으나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2. 초성의 오류

2.1 어두 초성의 오류

어두 장애음 ㄱ/ㄲ/ㅋ, ㄷ/ㄸ/ㅌ, ㅂ/ㅃ/ㅍ, ㅅ/ㅆ/ㅊ, ㅎ의 총 token수는 제보자A가 926개, 제보자B가 966개이다. 두 제보자 모두 ㅎ과 ㄸ에서 전혀 오류를 보이지 않으며, 오류의 거의 대부분은 평음~경음~격음의 혼란이다. 국어의 장애음 체계에서 후두마찰음은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지니지 못함을 고려할 때, ㅎ의 오류가 없다는 점은 오류 경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ㄸ의 오류가 없다는 점은 ㄷ, ㅌ의 오류가 존재함을 볼 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평음~경음~격음의 혼동에 초점을 두고 ㅎ의 수치는 제외하고 자 한다.

“분석” p’unsək(제보자A) / phunsək(제보자B)

“찝찝” chəpc’əp(제보자A,B)

“큼직한” k’imdqikhanj(제보자B)

각 자음의 오류어형 수 및 비율을 보인 <표1>을 보면, 제보자A가 경음(특히 ㅈ에서) 다소 많은 오류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평음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⁰

[경향1 : 어두 장애음 초성의 오류]

- 1-1. 어두의 ㅎ은 전혀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
 1-2. 어두의 경음, 격음에 비해 평음의 오류가 많다.

평음의 오류는 거의 다 경음으로의 발음 또는 격음으로의 발음이다. 다만 ㅅ은 대당하는 격음이 없기 때문에 경음으로의 오류만이 보인다. 우리의 일

차적인 관심은 평음을 잘못 발음할 때에 경음으로의 오류가 많은지 격음으로의 오류가 많은지에 있기 때문에, ㅅ의 오류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제보자A는 ㅅ의 오류를 제외한 76개 오류 중에서 경음으로의 오류가 29개(38.2%), 격음으로의 오류가 43개(56.6%)로 나타났다. 제보자B는 역시 ㅅ의 오류를 제외한 162개 오류 중에서 경음으로의 오류가 72개(44.4%), 격음으로의 오류가 78개(48.1%)로 나타났다. 두 제보자 공히 격음으로의 오류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차이는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행음

		제보자A	제보자B
평 음	ㄱ	12/116	35/118
	ㄷ	27/90	45/100
	ㅂ	13/76	33/76
	ㅅ	31/144	18/170
	ㅈ	24/108	49/112
	ㅎ	0/58	0/56
		107/592 (18.1%)	180/632 (28.5%)
총 제외		107/534 (20.0%)	180/576 (31.3%)
경 음	ㄲ	8/34	1/34
	ㄸ	0/42	0/42
	ㅃ	6/28	0/28
	ㅆ	3/28	3/26
	ㅉ	13/30	1/32
		30/162 (18.5%)	5/162 (3.1%)
격 음	ㅋ	2/24	3/24
	ㅌ	4/44	2/46
	ㅍ	0/34	3/34
	ㅊ	1/70	4/68
		7/172 (4.1%)	12/172 (7.0%)
합		144/868 (16.6%)	197/910 (21.6%)

<표1>

- 4) 어두장애음의 조음위치나 조음방법(파열/마찰/파찰)에 따른 오류율의 차이는 일반화되기 어렵다.

제2음절 초성	제1음절 초성 평음 경/격음으로의 오류	
	→경음	→격음
평음	14/85	71/85
경음	71/89	18/89
격음	16/48	32/48

<표2>

절 초성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목표어형이 1음절인 경우 또는 제2음절 초성이 평음인 경우 두 제보자의 모든 어형의 수는 298개이다.⁵⁾ 이 중 경/격음으로의 오류는 85개인데, 격음으로의 오류가 71개인 반면 경음으로의 오류는 14개뿐이다. 반면 후행음절 초성이 경음인 경우 두 제

보자의 모든 어형의 수는 264개이며 이 중 경/격음으로의 오류는 89개인데, 격음으로의 오류가 18개뿐인 반면 경음으로의 오류는 71개로 월등히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후행음절 초성이 격음인 경우 두 제보자의 모든 어형의 수는 234개이며 이 중 경/격음으로의 오류는 48개인데, 격음으로의 오류가 32개이며 경음으로의 오류는 16개로 전자가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제보자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경향1] : 어두 평음 초성(ㅅ 제외)의 오류]

- 1'-1 1음절어 혹은 제2음절의 초성이 평음인 경우 격음으로의 오류가 많다.
- 1'-2 제2음절의 초성이 경음인 경우 경음으로의 오류가 많다.
- 1'-3 제2음절의 초성이 격음인 경우 격음으로의 오류가 많은 편이다.

한국어 어두의 평장애음은 무성음이면서 약간의 유기성을 동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후행음절 초성이 없거나 혹은 유성장애음, 비음, 유음 등인 경우 이들이 모여인 일본어에도 모두 음소로서 존재하는 음이라는 점에서나 조음사 緊張性이 없다는 점에서 선행음절의 초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두의 평장애음이 다른 음의 영향 없이 가장 온전하게 발음될 수 있는 무표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오류의 대부분이 경음이 아닌 격음으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경향1'-2, 1'-3]에서 후행음절 초성이 경/격음일 때에는 그 긴장성이나

5) 어두음이 ㅅ인 경우는 역시 배제하였다.

유기성이 어떤 식으로든 선행음절 초성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긴장성이 間隙同化를 일으킨다거나 운율적인 자질로서 음 운론적 단어 전체에 연결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음소로서 존재하지 않는 음에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그 音像이 어두음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예측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목표어형의 어두음이 경음인 경우와 격음인 경우 소수의 예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오류는 각각 경음으로의 것과 격음으로의 것이다. 즉 어두에서 경음과 격음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평음으로 발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서 살피게 될 어중 경/격음 초성의 오류 경향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어두에서 평음과 경/격음의 차이는 분명히 인식하고 발음하고 있음을 말한다.

[경향1 : 어두 초성의 오류]

1-3 어두의 경음과 격음은 평음으로 잘못 발음되는 일이 없다.

[경향1-2, 1'-1, 1-3]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음소/변이음간 유사성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림1>은 한국어 어두의 평음, 경음, 격음의 자질명세 및 일본어 어두 무성음과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한국어의 평음에 [+asp]라고 표시한 것은 약한 유기성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많은 음성자질들이 그러하듯 유기성도 사실 有無의 것이 아니라 程度의 개념으로

한국어 어두		일본어 어두
평 음		일본어
[−voice] [+asp]	=	
([−tense])		무성음 변이음
경 음		
[−voice]		
[−asp]		
([+tense])		
격 음		
[−voice]		
[+asp]		
([⊕tense])		

<그림1>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유기성을 정도로만 본다면 경음은 유기성이 ‘雱’, 평음은 ‘약간’, 격음은 ‘매우’라고 하여 충분히 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운기술에서 유기성은 편의상 유무로만 표시된다. 유기성이 유무로만 명시될 때 평음과 경음을 구분짓기 위한 자질이 긴장성이다. 그러나 이 긴장성이라는 것도 긴장의 부위가 喉頭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음성적으로는 경음과 격음이 같은 정도의 긴장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격음의 긴장성에도 약하다는 의미로 ⊕를 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어 어두의 평음을 성격짓는 자질은 [-유성성, ⊕유기성, -긴장성]이 되며 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국어 어두의 평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의 음은 일본어 무성음 중 어두에서의 변이음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⁶⁾ 일본어의 무성음은 어두에서 약한 유기성을 보이지만 어중에서 유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服部四郎 1954), 한국어 어두 평음과 일치를 보이는 것은 일본어 음소로서의 무성음이 아니라 어두에서의 변이음이라고 하여야 정확한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변이음은 의식할 수 있는 층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 화자가 실제로 의식하는 것은 한국어 음소와 일본어 변이음간의 유사성이 아니라 한국어 음소와 일본어 음소간의 유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유사성이 포착되면 일본어 화자는 한국어 어두 평음에 대해 별다른 의식 없이 모어의 무성음으로 대체하여 발음하기 쉬워지는데, 이처럼 유사성을 인식하게 된 한국어의 ‘음소’ 평음과 일본어의 ‘음소’ 무성음이 완전히 같은 성질의 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⁷⁾ 즉 한국어 평음에 대해 일본어 화자가 무성음의 특정한 변이음만을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변이음으로도 발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상기한 바 일본어의 무성음은 크게 어두의 약한 유기음과 어중의 무기음으로 나눌 수 있고, 보다 세부적으로 어두

6) 물론 유기성의 정도에까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VOT는 한국어 평음이 조금 크다고 한다(이경희·정명숙 1999).

7) 상급자의 경우 모어에 존재하지 않는 목표언어의 음보다 오히려 모어에 유사한 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오류를 더욱 많이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어를 배우는 영어화자 상급자는 u보다 y에서 오류가 적다고 한다. y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이며, u는 영어 화자에게 모어의 u와 같은 음소라고 인식되지만 영어의 u는 불어의 그 것보다 원순성이 덜하다(Major 1994 참조).

의 약한 유기음은 액센트 유무에 따라서 조금 강한 유기음과⁸⁾ 조금 약한 유기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 만일 한국어 어두 평음에 대해 일본어 화자가 이를 각각을 발음한다면, 어두의 약한 유기음은 평음으로, 어두의 조금 강한 유기음은 격음으로, 어중의 무기음은 경음으로 들리기 쉽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대등한 정도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어두 평음에 대해 후행음절의 音像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무표적인 경우 경음으로의 오류를 적게 보인다는 것은, 모어의 단어내 위치에 따른 변이음 체계가 그대로 전이되어 온 결과로 여길 수 있다. 즉 한국어 ‘어두’ 평음을 발음할 자리에 일본어 ‘어중’ 무성음을 발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어 어두의 두 변이음 즉 액센트의 유무에 따라 유기성에 조금 차이가 있는 두 변이음은 자연스레 발음될 수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각각 평음과 격음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이렇듯 한국어의 어두 평음은 일본어 무성음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반면 어두 경/격음은 일본어와 유사한 변이음을 찾을 수가 없다. 어두 격음은 일본어의 액센트가 엿힌 어두 무성음과 유사할 듯하지만 실제로 유기성이나 VOT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어두 경음은 일본어 어중의 무성무기음과 유사성을¹⁰⁾ 포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단어내 동일위치의 음간 유사성만큼 쉽게 포착되지는 못할 것이다. 설령 유사성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어 화자가 어중의 무성무기음을 어두에서 발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유사성에 의한 오류를 기대

8) 조금 강한 유기음이란 예를 들어 [tako] “たこ”의 어두음으로서 실제로 VOT가 한국어의 격음만큼 크지는 않지만 한국어 화자에게 흔히 격음으로 인식되는 음을 말한다. 유기성과 VOT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VOT란 시간단위일 뿐 일정한 시간에 구강을 통과하는 공기의量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9) 일본어 무성음의 변이음 실현에 있어서 어두와 어중의 유기성의 정도는 중요시하지 않고 有無로만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어 화자는 종종 한국어 단어의 첫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것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문에 격음으로의 오류가 많다고도 볼 수 있겠다.

10) 물론 긴장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기성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다면 포착 가능한 유사성이라 할 수 있다. 긴장성이라는 것이 한국어 음운기술을 위한 자질인지도 모르겠다.

할 수가 없다.

정리컨대 [경향1-2, 1'-1, 1-3]은 한국어 음소와 일본어 음소(변이음)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설명될 성질의 것이다. [경향1-2]에서 평음의 오류가 많은 것은 경/격음과는 달리 모어와의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한 것이며, [경향1'-1]에서 그런 평음이 경음으로의 오류보다는 격음으로의 오류를 많이 보이는 것은 일본어의 어두에 무성무기음이 발음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향1-3]에서 경/격음이 평음으로 발음되지 않음은 일본어 어두 무성음과 전혀 다른 음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어중 초성의 오류

어중에서 장애음이 초성으로 실현되는 환경은 장애음 뒤의 경음, 격음과 공명음 뒤의 평음(유성음), 경음, 격음이라 할 것이다. 이들 중 유성음화된 평음에 대한 오류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¹¹⁾ 대부분의 오류는 경음과 격음이 각기 격음, 경음 및 평음(무성음)으로 발음된 것들이다. 따라서 어중 경/격음의 오류를 앞서 논의된 어두의 그것과 비교하고자 한다.

	경음			격음		
	어두	장애음 뒤	공명음 뒤	어두	장애음 뒤	공명음 뒤
오류율(%)	10.5	38.0	34.9	5.5	9.3	15.3
오류어형(%)	→평: 2.2 →격: 97.8	→평: 50.4 →격: 49.6	→평: 32.3 →격: 67.7	→평: 10.5 →경: 89.5	→평: 46.2 →경: 53.8	→평: 23.4 →경: 76.6

<표3>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어두의 오류율이 낮다는 점과 어중 경음의 오류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어두에서 가장 정확하게 발음된다는 것은 가장 무

11) 제보자A의 “감기”[kam̚i], “낭비”[nam^bmi] [namdi], “눈비”[num^bmi], 제보자B의 “네 군데”[riginri], “잔디”[c^haŋri] 가 전부이다.

한국어 어중		일본어 어중
평음 [+voice] ([-asp] [-tense])	=	일본어 유성음 음소
격음 [-voice] [+asp] ([⊕tense])	=	일본어 무성음 변이음

<그림2>

표적인 위치이면서 가장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물론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은 일본어에서 어두이든 어중이든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어 습득에서는 두 위치에서 습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음운론적 단어내 자음의 위치가 어두→어중→어말의 순으로 유표적이라는 보편적 사실로 설명된다(Eckman 1977).

어중 경음의 높은 오류율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어중의 평음, 경음, 격음의 자질명세 및 일본어 어중의 유성음, 무성음과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어의 어중 평음은 일본어의 유성음 음소와 동일하며, 일본어의 유성음이 별다른 변이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는 기대할 수 없다.

어중 경음은 잉여적인 긴장성을 제외한다면 일본어의 무성음 변이음과 일치를 보이지만, 이는 어두에서는 약한 유기성을 띠고 어중에서는 유기성을 전혀 띠지 않는 일본어 무성음 음소의 한 변이음과의 일치라는 점에서 어중 평음에서의 유사성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어중 격음에 비해 어중 경음의 오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우선 어두에서도 오류율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유사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 어중의 경음과 일본어의 어중 무성음의 유사성에 이끌려 경음의 자리에 어중 무성음을 대치해 넣음으로써 긴장성의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오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격음은 어두에서도 경음에 비해 오류율이 적었다는 사실과 함께 일본어에 유사한 어중음이 없다는 점에서도 쉽게 오류어형을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경음으로의 오류가 발견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오류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애써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경향2 : 어중 초성의 오류]

- 2-1 어두에 비해 어중에서 경음·격음의 오류가 많다.
- 2-2 어중 경음의 오류가 많다.

3. 종성의 오류

3.1 어말 종성의 오류

일본어의 기본적 음절구조는 CV이며, ㄴ이 어말에서 [N]으로 실현되고 ㄱ이 일부 감탄사의 어말에서 실현될 뿐이다. 따라서 일본어 화자가 한국어의 어말 종성을 인식하고 발음하기란 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어 화자의 CVC 발음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보이는 일본어 화자의 주된 오류는 어말에 모음을 삽입하는 것과 어말 자음을 탈락시키는 것인데, 본 연구의 제보자에게서는 어말 자음 탈락만이 약간 보일 뿐¹²⁾ 주된 것은 다른 자음으로의 발음이다.

	ㄱ의 오류	ㄷ의 오류	ㅂ의 오류	계
제보자A	18/140 (12.9%)	6/50 (12.0%)	7/38 (18.4%)	31/228 (13.6%)
제보자B	28/144 (19.4%)	30/44 (68.1%)	4/38 (10.5%)	62/226 (27.4%)

<표4>

12) 어말 장애음 뒤에 모음이 삽입된 예는 단 한 token만이 보일 뿐이다. 제보자B의 [ʃimnjuk^{h:}]“심육”.

어말 장애음의 전체 오류율은 제보자A가 13.6%, 제보자B가 27.4%로서 제보자B가 두 배에 달한다. 종성별로 보면 제보자A는 ㅂ에서 비교적 많은 오류(18.4%)를 보이며 제보자B는 ㄷ에서 매우 많은 오류(68.1%)를 보인다. 전체 오류율의 차이는 두 제보자의 한국어 숙련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음별 오류율의 차이는 위의 수치만을 두고 본다면 개인마다 발음을 잘하는 종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지 어말 장애음 발음이라는 문제에만 시각을 고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과적 현상이 있을 때 그 결과는 A라는 기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B라는 기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 두 기체가 모두 작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제보자A가 ㅂ의 오류를 많이 보이는 원인이 ‘제보자A는 여타 어말 장애음에 비해 ㅂ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는 기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무관한 다른 기체가 ㄱ, ㄷ 종성에서는 수치상으로 드러날 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한 반면 ㅂ 종성에서는 영향을 주어 수치가 커졌다고 할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어말이 ㅂ인 항목은 모두 19개인데, 이 중 1음절어가 10개이다. 흥미로운 점은 제보자A가 ㅂ 종성에서 보인 오류 어형 7개 중에서 6개가 1음절어라는 것이다. 만일 제보자A가 유독 장애음을 종성으로 지닌 1음절어를 잘 발음하지 못한다면, <표4>의 제보자A의 ㅂ 오류 수치는 단순히 ‘어말 장애음 ㅂ’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보자A는 장애음을 종성으로 지닌 1음절어 62어형 중 17개(27.4%)에서 종성의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제보자B는 60어형 중 16개(26.7%)에서 종성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수치만을 비교한다면 두 제보자의 오류율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말 장애음의 전체 오류율과 비교해 보면 제보자A가 유독 장애음 종성의 1음절어에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제보자A의 어말 장애음 전체 오류율은 13.6%이고 제보자B는 27.4%이다. 즉 제보자A는 장애음 종성의 1음절어에서 전체 어말 장애음보다 두 배 가까운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제보자B는 거의 같은 정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A가 유독 장애음 종성의 1음절어에서 곤란을 겪는다는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어말 ㅂ의 어형 중 1음절어를 제외하고 오류율을 계산한다면,

제보자A는 1/18(5.6%), 제보자B는 2/18(11.1%)가 된다.¹³⁾ 수치가 위낙 작기는 하지만, 제보자B의 경우는 <표4>의 10.5%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으나 제보자A는 <표4>의 18.4%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즉 <표4>에서 제보자A의 ㅂ 오류율은 어말 ㅂ을 잘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보자A가 장애음을 종성으로 갖는 1음절어의 종성을 잘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표4>는 역으로 두 제보자 공히 어말 장애음 중에서 ㅂ을 가장 잘 발음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언어습득 과정에서 양순음을 가장 먼저 습득하게 되며 혀를 이용하는 여러 자음과는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보편적 사실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경향3 : 어말 종성의 오류]

3-1 어말 장애음 중 ㅂ을 가장 잘 발음한다.

[개인적 경향(제보자A)] 1음절어의 장애음 종성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

다음의 <표5>는 어말 장애음의 오류 어형을 어말음절의 초성과 중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제보자A의 경우 오류의 수가 위낙 적기 때문에 특별히 경향을 거론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다만 어말 그에서 ㄷ으로의 오류 6여형과 탈락 또는 聲門音化하는 8여형이 비교적 큰 수치를 보이는데, 전자는 6여형 중 5개가 1음절어로서 앞서 이미 논의된 것이다. 후자는 제보자B에게도 공통된 경향으로 나타난다.

두 제보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경향인 어말 장애음의 탈락 또는 성문음으로의 오류는 제보자B의 “넷” [ni] 한 어형을 제외하고는 목표어형의 어말음이 그인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말음절 중성이 [-고음성]일 때에만 나타나며, 초성이 경/격음일 때에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13) 조사항목 중 어말에 장애음을 지닌 1음절어는 모두 31개로서 그 종성이 11항목, ㄷ 종성이 10항목, ㅂ 종성이 10항목이다. 이들을 제외한 오류율은 그의 경우 제보자A가 16/120(13.3%), 제보자B가 26/124(21.0%)이고 ㄷ의 경우는 제보자A가 4/30(13.3%), 제보자B가 18/22(81.8%)이다.

제보자A			제보자B						
종성	중성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종성	중성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초성					초성			
ㄱ	평음	0/12	7/24	0/14	평음	4/12	3/24	0/14	
		ㄷ	ㄷ 6	ㄷ		ㄷ 1	ㄷ	ㄷ	
		ㅂ	ㅂ	ㅂ		ㅂ 2	ㅂ	ㅂ	
		ø/? 1				i 1	ø/? 3		
	경음 격음	1/32	9/44	1/14	경음 격음	9/32	9/48	2/14	
		ㄷ 1	ㄷ 3	ㄷ		ㄷ 9	ㄷ	ㄷ	
		ㅂ	ㅂ	ㅂ		ㅂ	ㅂ 2	ㅂ	
		ø/? 6	ø/? 1				ø/? 8	ø/? 2	
ㄷ	평음	1/8	2/8	0/10	평음	2/6	6/8	8/8	
		ㄱ	ㄱ 2	ㄱ		ㄱ 0	ㄱ 5	ㄱ 7	
		ㅂ 1	ㅂ	ㅂ		ㅂ 2	ㅂ	ㅂ 1	
							ø 1		
	경음 격음	3/14	0/4	0/6	경음 격음	6/14	4/4	4/4	
		ㄱ 3	ㄱ	ㄱ		ㄱ 4	ㄱ 4	ㄱ 4	
		ㅂ	ㅂ	ㅂ		ㅂ 2	ㅂ	ㅂ	
ㅂ	평음	2/12	2/6	0/4	평음	0/12	1/6	0/4	
		ㄱ 1	ㄱ	ㄱ		ㄱ	ㄱ	ㄱ	
		ㄷ 1	ㄷ 2	ㄷ		ㄷ	ㄷ 1	ㄷ	
	경음 격음	0/2	2/10	1/4	경음 격음	0/2	2/10	1/4	
		ㄱ	ㄱ 2	ㄱ		ㄱ	ㄱ 2	ㄱ 1	
		ㄷ	ㄷ	ㄷ		ㄷ	ㄷ	ㄷ	

<표5>

어말음절 중성이 중/저모음인 경우 제보자A는 96여형 중 8개(8.3%), 제보자B는 100여형 중 13개(13.0%)가 탈락 또는 성문음으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류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오류 여형 대비 비율을 보면 어말음절 중성이 중/저모음일 때의 어말 ㄱ의 전체 오류 31개(제보자A가 17개, 제보

자B가 14개) 중 21개로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오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경향3 : 어말 종성의 오류]

- 3-2 어말 장애음의 탈락 또는 성문음으로의 오류는 그에서만 일어난다.
- 3-2' 어말음절 종성이 [-고음성], 종성이 그인 어형의 어말음 오류는 대체로 탈락 또는 성문음으로의 오류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성-종성 연쇄에서의 종성 인식 방법이라는 청음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듯하다.¹⁴⁾ 중성-종성 연쇄의 경우 종성의 공명이 뒤이은 폐쇄에 이르는 사이 겪게 되는 음파의 변동에 의해 종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중/저모음 뒤에 [t]가 이어질 때에는 [+重音性]에서 [-중음성]으로의 음파의 변동으로 종성을 인식할 수가 있다. 중/저모음 뒤에 [p]가 이어질 때에는 [+중음성]이 연속되기는 하지만 입술이 닫힐 때까지의 구강내共鳴에 의해 종성을 인식할 수가 있다. 반면 중/저모음 뒤에 [k]가 이어질 경우 [+중음성]이 연속되면서 연구개에서 구개수에 이르는 부위가 폐쇄됨으로써 구강내 공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서 종성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처럼 구강내 공명이 음파의 변화없이¹⁵⁾ 정지됨은 곧 모음만으로 발성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성이 있으며, 혹 공명 공간이 매우 좁다는 점에서 연구개~구개수 이하의 폐쇄 가능 위치인 성문의 폐쇄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즉 중/저모음-ㄱ 연쇄나 중/저모음-∅, 중/저모음-? 연쇄는 청음적으로 혼란을 겪기에 충분하며, [경향3-2]는 이러한 혼란의 가능성성이 모어에 어말 장애음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어 화자에게 드러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경향은 오류율이 매우 낮은 미약한 경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성학적인 해석이 절대성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제보자B는 제보자A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류가 많은 편이지만 특히 나 ㄷ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다른 장애음에 비해 ㄷ을 잘

14) 현재로서 조음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힘들다. 아울러 어말음절 초성이 경/격음일 때에 이러한 오류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15) 물론 구개수 이하의 공명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하기는 비교적 어렵다.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 그 원인은 밝히기가 힘들다. 다만 오류경향을 주변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는 있을 듯하다.

ㅂ으로의 오류가 적음은 전술한 바 [경향3-1]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를 제외한 ㄱ으로의 오류만을 볼 때 우선 어말음절 초성에 따라 오류율을 살펴면 초성이 평음일 때와 경/격음일 때 공히 22여형 중 12개씩의 오류를 보여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어말음절 종성의 [고음성]을 기준으로 오류율을 살펴면 종성이 고모음일 때에는 20여형 중 4개에서 ㄱ으로의 오류를 보이는 반면 중/저모음일 때에는 24여형 중 20개(83.3%)에서 ㄱ으로의 오류를 보인다. 즉 제보자B는 어말음절의 종성이 중/저모음이고 종성이 ㄷ인 경우 이 ㄷ은 ㄱ으로 오류가 많다고 할 것이다.¹⁶⁾

[개인적 경향(제보자B)] 어말음절의 종성이 [-고음성]인 경우 어말 ㄷ은 대부분 ㄱ으로 발음된다.

이 경향은 비록 제보자B에게만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류율이 꽤 높으며, 조음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조음적으로 ㄱ은 調音體 舌背가 調音點 軟口蓋(~口蓋垂)에 닿고 ㄷ은 조음체 舌端이 조음점 齒槽에 닿는 음이다. 물론 초성일 때이든 종성일 때이든 조음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종성일 때에는 선행하는 모음의 고음성과 관련성을 지닐 수가 있다.

중/저모음을 발음한 뒤 ㄱ을 발음할 때와 ㄷ을 발음할 때의 開口度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저모음 뒤에서 종성 ㄱ이 발음될 때에는 모음을 발음할 때의 개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설단만이 연구개에 닿는다. 즉 개구도에 있어서만큼은 조음의 便易性(ease of articulation)이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중/저모음 뒤에서 종성 ㄷ이 발음될 때에는 개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입을 벌린 채 설단만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다물어지면서 설단이 치조에 닿게 되는 것이다. 곧 구강의 모양이 중/저모음의 상

16) 한편 제보자B가 ㄱ을 ㄷ으로 잘못 발음한 예를 보면, 어말음절 초성이 경/격음이고 종성이 고모음, 종성이 ㄱ인 “페뚝, 절뚝, 억측, 앞측, 말쑥, 텁뻑”에 집중되어 있다. “縢뻑”을 제외하고는 어말음절의 초성이 [+凸頂性]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태에서 고모음의 상태로 바뀌지 않고서는 발음할 수가 없으며 그만큼 개구도에 관한 한 조음의 편이성은 잦게 된다. 따라서 중/저모음 뒤의 종성 ㄷ은 보다 편이한 조음을 위해 개구도를 바꾸지 않아도 좋을 ㄱ으로 발음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어말 ㅂ의 오류가 적다는 것과 관련하여 ㅂ으로의 오류 역시 많지 않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목표어형 어말 ㄱ 또는 ㄷ이 ㅂ으로 발음된 예는 다음이 전부이다.

제보자A : “깃” [kip]

제보자B : “깃” [kip / kip] “햇빛” [hjeppip / hjeppip] “꾸뻑” [k'ip'əp]
“밥맛” [pammap] “목” [mup / mup] “최폭” [chikphop]

대부분 제보자B의 오류인데, 두 제보자가 함께 오류 어형을 보인 “깃”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말음절의 초성이 양순음인 예들이다. 어말 종성 ㅂ이나 ㄷ을 듣고 발음할 때에 그 자음이 장애음인 것임은 분명히 인식하였으나 정확한 조음위치를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어말 종성의 장애성과 조음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였으나 발음에 곤란을 겪을 경우 제보자B는 초성의 조음 위치에 영향을 받아 같은 조음위치의 장애음으로 발음하고 있지는 않나 추측할 뿐이다.¹⁷⁾

3.2 어중 종성의 오류

어중에서 장애음이 종성으로 위치할 수 있는 환경은 모음 뒤 경/격음 앞이다. <표6>은 이러한 자음연쇄에서 장애음 종성의 오류 수치를 보인 것이다. 어말의 경우와는 달리 어중 장애음 종성이 탈락한 예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탈락이 없다는 것은 제보자의 숙련도에 1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선행요소가 모라의 단위로 기술될지라도 동일 조음위치의 Ci\$Ci와 흡사한 구조가 일본어에도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전이된 것이라 여길 수도

17) 앞서 자료가 충분치는 않았으나 (주16)에서 제보자B가 보인 어말 ㄷ으로의 오류의 상당수가 초성이 [+설정성]의 자음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성이 있다.

C1	C2	전체	제보자A의 C1 오류			전체	제보자B의 C1 오류		
			전체오류	위치동화	기타		전체오류	위치동화	기타
ㄱ	ㄱ/ㅋ	16	0	0	0	16	0	0	0
	ㅃ/ㅍ	16	0	0	0	14	7	7	0
	ㄷ/ㅌ	18	0	0	0	18	5	1	4
	ㅉ/ㅊ	28	60	0 0	0 0 0	28 60	9 14	6 7 3	7
ㄷ	ㅆ	14	0	0	0	14	0	0	0
	ㄱ/ㅋ	10	5	5	0	10	6	5	1
	ㅃ/ㅍ	14	8	7	1	14	14	13	1
	ㄷ/ㅌ	12	2	0	2	12	2	0	2
ㅂ	ㅉ/ㅊ	14	34	0 2	0 0 0	16 36	3 9	0 4 3	5
	ㅆ	8	0	0	0	8	4	4 0	0
	ㄱ/ㅋ	22	0	0	0	24	0	0	0
	ㅃ/ㅍ	16	2	0	2	16	2	0	2
ㅂ	ㄷ/ㅌ	16	3	2	1	18	4	4 0	0
	ㅉ/ㅊ	24	52	0 3	0 2 0 1	24 54	0 4	0 4 0	0
	ㅆ	12	0	0	0	12	0	0	0

<표6>

있다.

전반적인 오류율을 보면 제보자A는 제보자B에 비해 어중 장애음 종성의 오류가 매우 적음이 우선 눈에 띈다. ㄱ은 전혀 오류가 없으며 ㅂ은 5어형 만을 보일 뿐이다. 다만 ㄷ이 K, P¹⁸⁾ 앞에서 위치동화된 예가 24어형 중 12개에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성 ㄷ이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서 제보자A는 58어형 중 15개(25.9%)를, 제보자B는 60어형 중 29개(48.3%)를 잘못 발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K, P 앞에서 위치동화된 예가 많은데 제보자A는 24어형 중 12개(50.0%), 제보자B는 24어형 중 18개(75.0%)의

18) 조음위치를 양순, 치조 및 구개, 연구개의 셋으로 나누고 각 조음위치의 장애음을 각기 P, T, K와 표시하였다.

오류어형이 위치동화되어 발음되었다. 그이나 ㅂ도 어느 정도 위치동화된 바 있으나 ㄷ처럼 두드려지지는 않는다.¹⁹⁾

종성 ㄱ은 제보자B에서만 오류를 보이고 있다. ㅂ으로 위치동화되기도 하고 ㄷ으로 위치동화되기도 하였다. 반면 종성 ㅂ은 두 제보자에게서 모두 오류를 보이는데, 위치동화된 것만 볼 때 제보자A는 “밥타는” [patthanin], 제보자B는 “밥타는” [patthanin]과 “헛짚다” [həpcitt'a / hətcitt'a]에서 위치동화된 예를 보여 type으로는 2개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들은 전체 조사항목 중에서도 몇 되지 않는 3음절어에 종성도 2개씩으로 그만큼 종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종성 ㅂ이 ㄱ으로 위치동화된 예도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곧 제보자A의 경우 종성 ㄱ과 ㅂ은 거의 위치동화되는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며, 제보자B는 이와는 조금 달리 ㅂ은 잘 위치동화되지 않으나 ㄱ은 ㄷ만큼은 아니지만 ㅂ보다는 위치동화를 더 쉽게 겪는다고 볼 수 있다.²⁰⁾

[경향4: 어중 종성의 오류]

어중 종성 ㄷ은 다른 자음에 비해 위치동화를 잘 겪는다.

다른 종성에 비해 ㄷ이 보다 많은 위치동화를 겪는 원인은 청음적, 조음적, 인식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음적 측면이란, 제보자가 조사항목을 듣고 장애음 종성의 존재는 분명히 들었으나 정확히 어떤 자음인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어에 존재하는 장애음 연쇄 또는 보편적으로 가장 발음하기 쉬운 장애음 연쇄인 Ci\$Ci로 발음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 종성 ㄷ을 분명히 듣기는 하였으면서도 ㄱ\$T, ㄱ\$P나 ㅂ\$K, ㅂ\$T에 비해 ㄷ\$K, ㄷ\$P가 상대적으로 발음하기가 어려웠다면 그것은 조음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어에 장애음 연쇄가 존재한다고 해도

19) 물론 동일 또는 유사 조음위치의 장애음 연쇄에도 오류가 보이지만 일반성을 포착하기에는 자료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제보자B에서는 ㄷ\$ㅆ에서 ㄷ이 ㅅ으로 발음되는, 한국어 음운론에서 흔히 마찰음화라 기술되는 조음방법상의 오류가 보이기도 한다.

20) 이는 어중 비음 종성에서 제보자B가 ○에서 많은 위치동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Ci\$Ci뿐이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조음상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모어의 전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모어의 전이가 아니라면 그러한 난이도의 차이는 보편적인 것일 가능성성이 높다. 한국어의 위치동화에 있어서 邊子音化가 後部邊子音化에 비해 보다 강력한 음운현상이라는 사실도 그러한 보편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인식적 측면이란 일본어의 음소체계 및 음소배열제약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일본어 음운의 기술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일본어 음운론의 일반적 기술과는 달리 만일 일본어의 ㅋ를 음소 /t/로 인식, p, t, k로의 필수적 역행동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어 종성이 ㄷ을 분명히 들었을 경우 일본어의 ㅋ와 한국어 ㄷ의 동일성이 포착되고, 이로 인해 ㅋ의 필수적 위치동화의 영향으로 위치동화가 쉽게 일어났을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 위의 가능성 중 어느 한 가지가 설명력을 갖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한국어 또는 종성이 불파되는 언어의 종성에 대한 면밀한 음성적 고찰이 이루어진 연후에 다시 돌아볼 문제라 생각된다.

4. 결론 : 모어의 전이 對 언어보편소

지금까지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장애음 발음의 오류에 대하여 단어내, 음절내 위치에 따라 분석하여 보았다.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어의 전이 또는 언어보편소]

어두의 ㅎ은 전혀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

어두 ㅎ의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류의 대부분이 평음~경음~격음의 혼동에 있음과 밀접한 관련에 있다.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은 일본어를 비롯한 유무성 대립의 언어에서는 혼치 않기 때문에 이는 모어의

전이로도 언어보편소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이다.

[언어보편소]

어두에 비해 어중에서 경음·격음의 오류가 많다.

어말 장애음 중 ㅂ을 가장 잘 발음한다.

어말 장애음의 탈락 또는 성문음으로의 오류는 ㄱ에서만 일어난다.

어말음절 종성이 [-고음성], 종성이 그인 어형의 어말음 오류는 대체로 탈락 또는 성문음으로의 오류이다.

어중의 경음·격음 초성은 어두에서보다는 많은 오류를 보인다. 이는 자음의 음운론적 단어내 위치의 유표성이 어두→어중→어말의 순으로 높다는 것과 관련된 언어보편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국어 어말 장애음 중 가장 오류가 적은 것은 ㅂ인데, 이는 언어보편적으로 언어습득 과정에서 양순음을 가장 먼저 익힌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자음이 ㅂ으로 오류를 일으킨 예도 적다.

중/저모음 뒤 ㄱ의 탈락 또는 성문음화는 절대적인 경향은 아니지만 중/저모음 뒤 ㄱ, ø, ?의 인식 방법의 유사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청음적 현상은 언어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모어의 전이 : 유사성의 오류]

어두의 경음, 격음에 비해 평음의 오류가 많다.

어두의 경음과 격음은 평음으로 잘못 발음되는 일이 없다.

1음절어 혹은 제2음절의 초성이 평음인 어두 평음은 격음으로의 오류가 많다.

어중 격음에 비해 경음의 오류가 많다.

어두 장애음 중 평음이 경음이나 격음에 비해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의 원인은 일본어 변이음과의 유사성([-유성성, ④유기성, -긴장성])에 있다. 어두의 평음은 후행음절 초성이 경/격음이 아닐 경우 즉 가장 무표적인 환경에서 격음으로의 오류가 많은데, 이는 평음을 격음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음 조음시 유사성이 포착된 일본어 무성음의 어두변이음으로 대체하여 발음하면서 유기성의 조절이 수월치 않았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두 경음과 격음이 보이는 오류는 각각 격음으로의 것과 경음으로의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평음과 경음·격음 간의 대립이 청음적으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어중 경음이 격음에 비해 오류가 두드러지게 많고 그 중 평(무성)음으로의 오류가 자주 보인다는 점은 일본어 무성음의 어중 변이음과의 유사성([-유성성, -유기성])에 기인, 일본어 어중 무성음으로 대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논저

- 김정숙(1990),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음운론적 오류분석」, 『한국어 학신연구』, 한신문화사.
- 이경희·정명숙(1999), 「일본인의 한국어 파열음에 대한 지각 단서」, 제19회 학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요지.
- 정미자(2000),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음·격음·경음 발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服部四郎(1951), 『音聲學』, 岩波全書131, 岩波書店.
- 櫛部榮次(1997), 「日本人의 韓國語 子音同化 發音現象에 관한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selow, E.(1983), Non-obvious Transfer, in S. Gass & L. Selinker(ed.), *Language Transfer in Language Learning*, MA: Newbury House.
- Carlisle, R. S.(1994), Markedness and Environment as Internal Constraints on the Variability of Interlanguage Phonology, in M. Yavaş(ed.), *First and Second Language Phonology*, Singular Publishing Group.
- Dickerson, L.(1974), Internal and External Patterning of Phonological Variability in the Speech of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Dickerson, W. B.(1976), The Psycholinguistic Unity of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Change, *Language Learning* 26.
- Eckman, F. R. & G. K. Iverson(1994), Pronunciation Difficulties in ESL, M. Yavaş(ed.), *First and Second Language Phonology*, Singular Publishing Group.
- Eckman, F. R.(1977), Markedness and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Language Learning* 31.
- Eckman, F. R.(1991), The Structural Conformity Hypothesis and the Acquisition of Consonant Clusters in the Interlanguage of ESL Learn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 Jakobson, Fant and Halle(1951),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MIT Press.
- Lado, R.(1957), *Linguistic across Cultur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jor, R. C.(1987), A Model for Interlanguage Phonology, in G. Ioup &

- S. Weinberger(ed.), *Interlanguage Phonology*, Newbury House Publishers.
- Tarone E. E.(1978), The Phonology of Interlanguge, in J. Richard(ed.), *Understanding Second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MA: Newbury House.
- Weinreich, U.(1953), *Language in Contact*, Linguistic Circle of New York.